

물의 상징, 그 다양한 스펙트럼

물은 분석 심리학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징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창조신화에 자주 등장한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비류국과 세력 다툼이 나자 홍수가 나도록 하늘에 빈 후, 비류국의 백성들을 구해 주는 신통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성경 속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리스 신화에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물론, 거인 프로메테우스도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아들 데우칼리온을 피신시키는 장면이 등장한다.

글 · 이나미 신경정신과 전문의 + 일러스트 · 강창욱



신화 이야기의 감초, 물

창조신화의 배경, 혹은 핵심으로 물이 등장하는 것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 혹은 유전자에 입력된 창조과정에 대한 기억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인간 생명의 탄생 역시 바닷물과 그 성분이 흡사한 자궁 속에서 시작되지 않는가. 물은 아주 미세한 생명체에서부터 거대한 생명체까지 포용하는 그릇이다. 물속에는 거대한 고래에서부터 조그만 플랑크톤까지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 숨 쉬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담 속에 등장하는 창조의 배경으로서의 물은 이러한 개체 발생과도 연관된다.

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은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물은 우선 담겨진 용기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한다. 자기의 모습을 고정시켜서 '나는 이리이러하다' 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물은 그 안에 많은 것을 담아 녹여낸다. 설탕도, 소금도, 흙도 물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런가 하면 물은 자기의 갈 길을 막는 방해물과 웬만하면 그 세를 다루지 않고, 부드럽게 양보해서 제 갈 길을 간다. 강물이 유유히 그 흐름을 바꿔 바다로 향하는 모습에서는 유장한 엄숙미가 느껴진다.

물은 또한 주변 온도에 따라, 파괴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단지 그 모습만 달라질 뿐이다.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전혀 다른 형태이지만, 기질 그 성분은 같다. 본성은 그대로인 채 주변의 상황에 따라 몸은 바꾸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같은 물이라도 상징은 제각각

이 같은 물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생각해볼 수가 있다. 첫째, 그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은 사라지지 않고 영속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물은 종교적 초월성의 상징으로 치환되며, 죄와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점에서 종교적 제례의 중요한 상징으로 기능한다. 예컨대 가톨릭의 성찬에 쓰는 포도주는 예수의 거룩한 피를 의미한다. 세례식은 물에 자신의 죄와 원죄를 씻어낸다는 의미를 담는다.

불교에서도 관세음보살은 물 위에 떠 있거나, 생명수를 담은 주전자를 들고 있거나, 물에 핀 연꽃 위에 그려진다. 사머니즘의 굿판에서 물은 잡귀를 쫓거나, 신성한 존재와 나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쓰인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술, 탕, 국은 각기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지만 모두 물이 갖고 있는 신성성을 그 안에 담아낸다. 주역에서도 불은 '양' 을 상징하는 가장 기본적

인 물질로, 물은 '음' 을 상징하는 기초 질료(Prima material)로 각각 치환된다.

두 번째, 물은 보이는 생물과 보이지 않는 생물, 그리고 무생물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거대한 무의식의 상징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유사한 맥락으로 물은 생명체를 담는 자궁의 이미지와 통한다. 생명의 탄생이 시작된 장소로서의 자궁과 물에 대한 무의식적 기억은 꿈이나 예술 작품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바다와 관련된 꿈의 대부분은 자신의 무의식과의 관계를 표상한다.

바다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깊은데, 우리 무의식도 그와 유사하다. 아름답고 장엄한 바다이지만, 때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우리를 삼키기도 하는 바다처럼, 만약 우리가 내부의 콤플렉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깊고 예측할 수 없는 무의식에 빠져서 허우적댈 수도 있다.

같은 물이지만 작은 샘, 오아시스의 샘, 강, 연못, 호수 등의 심리적 상징은 조금씩 다르다. 작은 샘은 생각이나 영감이 솟는 이미지, 사막에서 만나는 샘물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힘을 갖는다. 강은 인생의 역정이나 생활의 변환, 연못은 자기 삶의 공간, 호수는 연못보다는 좀 더 큰 의미로 무의식까지 아우르는 자기(Self)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의 에너지를 느껴보자

물에 관해 사색할 때는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청각적 이미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비가 조금씩 떨어질 때 우리는 흔히 '빗방울이 듣는다' 라고 표현한다.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단 뜻이거나, 아니면 생명의 작은 움직임도 빗방울이 듣고 반응한다는 말이 아닐까. 소나기, 폭포수, 강물, 바다의 파도 소리 등등 물소리에는 언어 그 이상의 초월적 경험들이 녹아 있다. 생명과 죽음, 생물과 무생물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스신화 속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26명의 부인과 결혼해서 60명이 넘는 자녀를 낳는다. 포세이돈과 같이 물은 엄청난 생명력과 창조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 내면적으로는 각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야 하듯, 외부적으로는 무한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물' 이란 자원 역시 조화롭게 잘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닌가 싶다. 🌊